



경고의 뉴스레터 “나팔”

발행일 : 2015년 12월 발행 (제 68호)

발행 : 경고의나팔 출판

가격 : 프리페이퍼

나팔 HP : <http://www.geocities.co.jp/Technopolis-Mars/5614/>

목차:

- ◎권두 메시지 '이집트라는 도시' 예레미야
 - ◎간증 "'사데(개신교)교회"는 나라가 위험한가?! (2)'
 - ◎알림 코너 '신간 서적 소개'
-

<권두 메시지>

'이집트라는 도시' 예레미야

이번에는 "이집트라는 도시'로써 이번 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종말의 교회는 이집트화되다>

계시록은 종말의 날에 이집트라는 도시가 출현 할 것을 예언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1:8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 도시는 무엇인가?라고 하면, 우리의 지금 이해는 종말의 날의 배교 된 교회를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구약 시대의 끝에 하나님의 백성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같은 일이 종말의 배도 교회에서 재현하기 위해 생각됩니다. 주님의 첫 오순절에 일어난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④ 구약 시대의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이 배교하고

② 엘리야의 재탕이다 세례 요한을 죽이고

③ 메시아 (기름 바른 쪽)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재림의 날에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④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배교하고

② 엘리야의 재림, 모세의 재탕이다 2 명의 선지자를 죽이고

③ 기름 칠한 분, 그리스도의 영 이신 성령을 다시 십자가에

<이집트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마을 배도의 교회는 "소돔과 이집트라고 불리는 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의 의미는 이전에 본 것처럼 '동성애'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교회는 이전과 달리 동성애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공언하는 목사가 교단도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의 소돔 화는 진행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소돔과 말하는 도시"라는 것은 지금의 교회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집트"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계시록에서 배교의 교회는 "이집트"라는 것입니까? 이 것을 생각하자. 성경에서 "이집트"에 대해 가장 자세하게 써있는 책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이집트를 "10 개의 화"치고 있습니다. 그 재앙의 많은 비유 이해로는 '귀신'에 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을 봅시다.

[나일의 물이 피로 변하는]

출애굽기 7:17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7:18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물"은 "성령"의 비유입니다. "성령"은 "생명의 물"입니다. 그러나 이날 이집트의 재앙이 내리고 물이 피로 변하고, 그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혈액은 분명히 "악령"의 비유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악령의 것으로 바뀌었다 것을 나타낸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구리]

출애굽기 8: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와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8:2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칠지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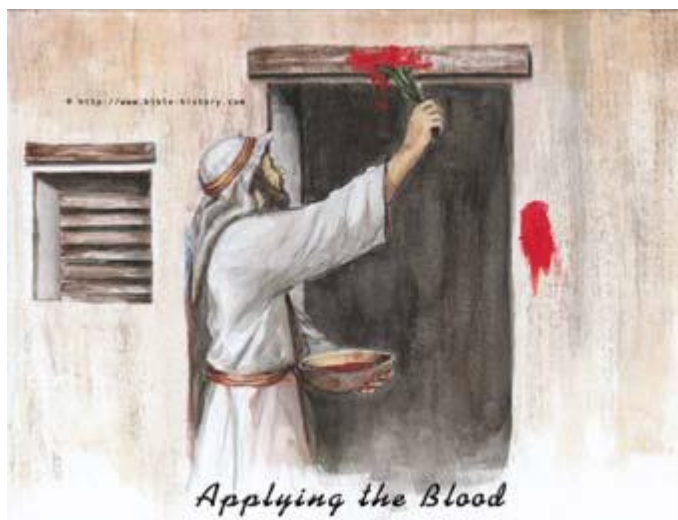
8:3 개구리가 하수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네 궁에와 네 침실에와 네 침상 위에와 네 신하의 집에와 네 백성에게와 네 화덕에와 네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지며

"개구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계시록에서는 "개구리"의 수 '더러운 귀신'과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일에서 나온 '개구리'도 '더러운 귀신'을 가리키는 비유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등에 (KJV 역 : 파리)]

출애굽기 8:21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에 파리 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 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의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유월절의 피가 성령을 표현한다

새로운 개역에서는 "등에"라고 쓰여져 있습니다만, KJV 역에서는 "파리"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악령의 베루제부루는 "파리 대왕"이라는 의미가 있으므로, "파리"도 '악령'을 비유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이처럼 이집트에 일어난 재앙은 악령인 것이었습니다.

<표적과 기사>

이 이집트에 재앙을 어떻게 이해해야하는 것일까 요? 지금의 교회와 이러한 재앙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성경을 쓴 주는 힌트를 주신 것 같다. 그것은 다음의 "표적과 기사" "signs andwonders"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3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10: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10:2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시편 135:9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너의 중에 징조와 기사를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복에게 임하게 하셨도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집트에 일어날 재앙에 대해 "표적과 기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과 기사"라는 말은 피터 와그너의 "성령의 제 3 물결의 부흥"에서 여러 번 강조한 말입니다.

즉, 피터 와그너, 베니 힌 빌 파문이 제창하는 '부흥 운동'이야말로 이집트의 "표적과 기사"이며, 이 부흥의 영이 성령 다름 아닌'악령의 재앙 "이다, 이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속죄"를 잃다>

이러한 부흥에 치유도 기적도 예언도 또한 환상과 멋진 계시까지 있습니다. 비록 귀신이든지 표적과 기적이 있다면 문제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견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이 부흥을 받아 "표적과 기사"를 추구가는 사람은 "속죄"를 잃는 것을 예언합니다. 다음 말씀을 보세요.

출애굽기 12:12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무론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12:13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유월절"진술이다. 그날에 여호와의 사자가 "재앙"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의 피"가 바른 있기 때문에 그 집에서 '재앙'이 지난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집에는 "어린 양의 피"가 발라 않기 때문에 주의 사자가 들어 첫 아이가 맞고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상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집에는 피가 그려진 않는, 즉 "속죄"를 데려가는 것을 볼 것입니다. 피터 와그너들의 부흥의 문제 이집트 부흥의 문제, 즉 그것은이 부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속죄의 피가 없어지지 '라는 문제입니다.

<"구속"이라는 것>

다시 '구속'이라는 것을 생각해봅시다. 주님은 일찍이 성찬식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25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성찬식의 "포도주"는 "성령"의 상징이며,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의 피 '

것입니다. 즉 귀신의 부흥에 광분하고 그 영을 쫓아가는자는 결과로 성령을 쫓아 내고 그리고 "보혈"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집트의 유월절 개소가 말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약령의 부흥에 광분하고 결과 성령을 쫓아 교회는 라오디게아로 요한 계시록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의 의미는 "백성의 형벌 '이라는 의미이며, 성령을 쫓아인 교회가"구속"을 잃고"형벌 "에 들어갈 수 암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라오디게아에 말씀을 봅시다.

요한복음 3:17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교회는 놀라운 오해를 하고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함"인데, 본인은 "부자가 부자가 된,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차이입니다. 왜 이 교회는 이런 오해를 하게 된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성령"을 몰아 내고 귀신의 부흥에 광분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풍부한 풍부하게 됐다"고 생각 될 정도의 영의 은사 나 기적, 치유 신기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성령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참하고 불쌍에서..."라고 하나님께 불리고있는 것입니다. 왜 이 교회가 성령을 쫓아 내고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20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이 교회에서는 '성령 되신 주'는 밖으로 쫓겨나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귀신을 성령과 믿음 그 이적과 기사, 기적, 예언, 치유, 계시 등을 추구하고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쫓아 내고 "속죄"를 잃은 그들의 도착하는 앞은 라오디게아, 즉 "백성에 대한 형벌"입니다. 어떻게 귀신 부흥을 추구 성령을 쫓아 내고 "속죄"를 잃는 것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이해 할 수 있을까요?

<어리석은 딸>

종말의 하나님의 백성이 배교하고 성령을 몰아 내고 귀신을 받아들이는 몇번이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또 하나의 예는 "어리석은 딸"부분입니다. 왜 그 결혼 날 바보 딸들은 신랑 이신 그리스도를 받아 들일 수 없었던 것일까? 그 이유로 성경은 단 하나의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5:3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즉 이들은 "기름"이다 "성령"을 없었습니다. 그녀들은 신랑 이신 그리스도와의 혼인을 원하지으니, 당연히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이어야 딸이 기름 성령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일까? 그 이유는 아마도 그녀들은 기적과 표적과 치유와 계시에 속아 악령을 성령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악령의 유혹이 성공적인 때문에 그녀들은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자신들이 성령을 잃고 "구속"을 잃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주님, 주님'하는 사람>

이 건과 관련하여 또 다른 예를 살펴 보자. 그것은 다음 "주여, 주여."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마태복음 7:21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7:22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7:23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 내고 기적을 많이 행한"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그리스도 그날 "나는 너희를 전혀 모른다. 불법을 이루는 자들. 나를 떠나 거라."라고 버리는 사람이 있는 것이 말해지고 있습니다. 웬지 놀라운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런 일이 되어 버리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언"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 냄"도 일찌감치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또한 "기적을 많이 하는"등 보통의 기독교인 수 없다, 이것은 대단한 그릇, 와우 일꾼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그날 그리스도 모르는 등으로 불린다 있을까요?

그런데, 결론을 말한다면, 이 부분의 문제점도 위의 라오디게아의 문제와 같은 것인 것입니다. 즉, '악령'을 가지고 "귀신의 표적과 기사"는 가지고 있지만 정작 "성령은 몰아내고있다"는 문제입니다.

상기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언을하고 귀신을 쫓아 내고 기적을 많이 행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영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아니라 오히려 "이집트의 표징 신기"이며, "귀신에 의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렇지 이기에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내가 너희를 전혀 모른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과는 아무 상관없이 '성령'과 '악령'과는 전혀 무관하므로 주님은 "모른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가 너희를 전혀 모른다."라는 말은 위의 "바보 같은 딸"로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딸의 문제점이 "기름 성령"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처럼 이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문제점도 그들이 "기름 성령"을 가지고 았었다는 것을 다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유래 부흥"은 바로 "이집트 악령의 상징"입니다. 이 부흥을 받아들이는 "구속을 잃을"일로 통하는 것을 알아 봅시다.



어리석은 딸은 기름 성령을 잃었습니다

"사데(개신교)교회"는 나라가 위험한가?! (2)

2013년 7월호에서 "사데(개신교) 교회"에 대해 이야기를 해 드린 적이 있으며 그때부터 상당히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최근 오전 예배 메시지 일어나서, 요한 계시록에서 예레미야 목사가 매우 중요한 점을 말씀하고 있었으므로 그 것을 소개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내용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특히 개신교 기독교인은 꼭 이 점을 알아 주셨으면... 생각 했으므로, 이번에 위의 주제에 따라 이야기 해 주시 게 되었습니다. 괜찮다면 읽어 주시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예레미야 목사가 메시지입니다. 성경 구절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3:1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오늘은 "신부님"에 관한 공부를 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신부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하면, "붉은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요한 계시록을 비롯해 성경의 다른 부분에 "홍보석"라는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만, 그것은 "사루데인"라고도 하고, 여기에서도 바로 "빨강"라는 말에 관계하는 것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님"(붉은 색)은 야곱의 형 "에사우"로 통합니다. 과거에서가 사냥에서 지쳐 돌아온 때 동생 야곱에게 "부디 그 붉은 것을 거기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해줘. 내가 굶어 지쳐 있으니까."(창세기 25 장 30 절)라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 "그러므로 그의 이름은 에돔 (붉다, 적사)라고했다."(창세기 25 장 30 절)라는 것이 쓰여져 있습니다. 또한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 (기독교인이 계승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있는 권한)"을 팔아 넘긴 것으로 부터 이름의 의미는 "욕약"라는 의미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바로 그것은 "신부님"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즉, "신부님"(붉은 색)은 "에사우"로 통합니다. 그리고 렘넌트 교회도 그렇습니다 만,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신부님"을 "개신교"라는 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계시록에는 일곱 교회가 등장 합니다만, 어느 교회도 각각의 어딘가의 시대에 속합니다. 그리고 "사데 교회"는 바로 종말의 '개신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종말과 재림의 때 "사데(개신교) 교회 '는 어떻게 될까? 라고하면, 그것은 야곱의 형인에서의 수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장자의 명분을 잃을"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게다가 이것은 매우 불길한 예언입니다. 왜냐하면 "장자의 권리"와 "하늘 나라를 상속받을 권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같은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듯이, 오른손 또는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통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또한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있는 사람도 가난한 자들을 자유인도 노예도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오른손 또는 그 액수 게, 각인을 받게했다."(요한 계시록 13 장 16 절)이라고 같습니다. 또한 그 것은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것을 당신의 아이들에게 잘 심어하십시오. 당신이 집에 앉아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도 이를 제거하십시오. 이것을 표로 당신의 손에 묶어 휘장으로 이마 위에 놓으십시오."(신명기 6 장 6-8 절)의 말씀에 도 통합니다.

또한 이번 말씀에... "당신은 살아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실은 죽었어."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살아있는"의 "삶"은 "영생"으로 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죽었어."라고 합니다. 참고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과 '육체의 죽음」외에 '영적 죽음', 즉 '죄'의 것도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죽었어."는 "생명 (영생)에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데 (개신교) 교회는 명목에 불과하다. '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생명 (영생)의 길 '을 걸을 수 있게 기도 해 나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죄"를 계속 유지 한 채 걸어

버리면 어떻게되어 버리는 것인가? 대해 좋으면 조금 살펴 보자.

요한복음 8:34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8:35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여기 지점에서...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 삶에서 '노예 (죄의 노예) 상태'가 되어가는 이 때 "집 (천국)"에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즉, "죄의 노예 상태"에서 자유롭게되어 걸을 때 나라를 상속합니다. 덧붙여서 "무슨 죄입니까?"성령님 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계속 실시해 있다면 거기에서 벗어나 가지 않는 한, 천국을 계속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죄"가있는 것이라면 해방되어 자유 로워지기를 기도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명목에서도 실패에서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행보 방법"라는 식으로 간주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한 계시록을 살펴 보자.

3:2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리고 죽어가는 다른 사람들을 굳게하라"고합니다 있도록 사데 (개신교) 교회는 "상태가 나쁘다'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죽었어요."라고 또한 "나머지는 죽어 가고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실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완수되었다고는 보지 못했다"고. 여기에서 '믿음'의 수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번 보아온 곳도 그랬지만 '믿음'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시」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즉 "행위가 문제이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실시"에 관해서 빈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려져 있으므로, 그곳을 채워 가고 싶습니다.

3:3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것을 굳게 지키고"고 있도록... 말씀을 제대로 지켜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둑 같이 올 것이다."라는 말에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은 "훔쳐"일로 통합니다. 덧붙여서 "훔쳐"는 절도 외에 "말씀을 훔치는'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당신은 내가 언제

당신에게 오는지 결코 알 수 없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즉 말하려고 하는 것은...
"재림의 교리가 도난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뜨지 않으면"이라고도 있기 때문에
"사이비 교리"를 가지고 오는 사람에 대해 깨어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3:4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삽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삽나이까

여기에서 "몇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덧붙여서 마태 복음에는 "생명에 이르는 문은
작고, 그 길은 좁고, 그것을 찾는 사람은 드물다."(7 장 14 절)라는 것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과 '희귀'라는 말은 같은 그리스어 원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몇
사람 간혹"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몇 사람"또는 "드물게"에 들어가 "흰 옷 (의의 옷)"을 추구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3:5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기는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고있다."고합니다 같이 여기 부분에서도 '흰 옷'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기는 자"고 있으므로 우리는 "죄"와 "불의"승리를하여 꼭 "흰 옷"을 입고
싶습니다. 그 것은 그대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게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개신교의 문제점에 대해 말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옷'을 더럽혀 버리는
것입니다. 즉 '불의'에 들어갔다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일은 결코하지 않는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이 것은 뒤집어 말한다면, "잘못된 사람은"생명책 "에서 이름이 지워질 '라는 것을
암시하고있는 듯합니다. 참고 만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 버리게 관련 출애굽기는 "지금
만약 그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되는 것이라면 그러나 만일 이루어지지 라면, 부디 당신이
작성되었다 당신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32 장 32 절)라고합니다. 또한 "내가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서와 천사들 앞에서 말로 표현한다."라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만,
그러나 그 반면,"그러나 나를 사람 앞에서 모르는 이란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

(누가 복음 12 장 9 절)라는 말씀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부정하는 사람도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 버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심해서 갔다 나누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에 오려고하고있는 시련의 때", 즉 "환난 시대 '를 극복하려면 어떻게하면 좋은 것일까 요? 그것은 '성공한 사람'을 본받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비롯한 과거의 12 제자처럼 모든 것에 따라 행보에 충실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의 것을 예레미야 목사가 말씀하고 있었습니다만 ...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데 (개신교) 교회"에 대해서는 약간 것도 이해하실까요? 참견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나 자신도 "사데(프로테스탄트)'의 한 사람으로서 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며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 했으므로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항상 중요한 것을 말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흰 옷 (의의 옷)"를 착용하고 나중에 "존중"을 받을 것이다